

International Relations

Sanghoon Park

2019-09-06

Chapter 1

Prerequisites

이 내용은 2019년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정치학과와 가을학기 학부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강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국제관계 3시간 강의 중 1.5H를 TA로 진행하게 되어 강의에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하던 중, 국제관계/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과감하게 분류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외교관 혹은 그와 유사한 직렬의 공무원직을 지원하고 싶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관계를 공부해야하는 학문 분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부, 대학원을 막론하고. 마지막으로 국제관계라는 분야에 흥미를 느낀 경우이다. 즉, 의무/전공/흥미 이 세 가지가 국제관계를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요상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국립외교원이다. 과거에는 외무고시였고 이제는 국립외교원. 몇 년을 신림동 혹은 그에 준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1차와 2차, 그리고 3차에 이르는 검증을 통과하면 그 사람은 1년의 국립외교원 연수생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5급 공채 외교관으로 임용된다.¹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의무로 국제관계를 공부하다보니 시험에 특화된 교재들이 존재하고, 그 교재에 맞춰서² 정형화된 내용들을 숙달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버리곤 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정도 답이 정형화된” 국제관계를 공부하거나 혹은 “출제될 법한 사례와 이론들”을 위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 여기서 질문. 과연 국제관계란 그렇게 틀에 맞추어서 볼 수 있는 것일까?
- 본인도 석사를 진학할 무렵에는 IPE와 CPE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사람으로, 국제관계에 조금이나마 매료된 바가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CPE를 선택하기는 했다. 내가 IPE를 포기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IR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두루두루 섭렵해야 한다는 데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었다.
- 이게 무슨 소리냐면, IR은 기본적으로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국가? 국가에 속한 단체? 개인? 국가를 망라한 국제단체? 등등)에 대한 철학적 고민도 해야하고, 국가 간 유사성과 차이성을 이해하기 위해 비교정치의 일부 분야도 이해해야 하며, 혹은 체계라고 하는 단순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서 그 무언가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한다.
- 동시에 다른 정치학 분야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을 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방법론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상대적으로 정치학에서는 역사가 짧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으로 정형화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론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설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아무튼, 이런 가설들이 미처 검증되기도 전에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이 세계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터지건 압도적인 역량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기민하게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의무에 따라 공부하는 국제관계는 어차피 정해진 텍스트들이 있고, 그 텍스트들을 소화하는 '방식'도 정해져 있으며, 외울 이론들이 상대적으로 제약적이니 만큼 굳이 별개의 포스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렇게 의무로 공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전공 또는 흥미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는 IR을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¹ 약간의 절차 상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가 아마 외시를 준비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외시의 개요라고 생각한다.

² 아마도 그 교재들이 합격자들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나올 법한 것들'을 정리해놓은 것이기 때문일터다.

내 블로그에도 우철구 교수님과 박건영 교수님의 교재, 그 이외에도 기타 저자들의 논문들을 이리저리 찌꺼기하여 정리한 자료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어보니 정말 재미가 없다. 나도 정형화된 이론적 틀에 집착한 공부를 했던 것 같다.

- 이번 학기 강의하게 된 국제관계 강의는 미국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토론이 가능한 위주의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교수님의 목표다.
- 따라서 개별 이론들을 깊게 파고들기 보다는 주제별로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동시에 국제관계 이론들, 현상들만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들과 그 행위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기본적인 게임이론도 소개하고 있다.

주별로 업데이트되다 보니 아마 초기 방향(실라버스)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강의하고 나서 되짚어보며 다시 한글로 정리하면 모자랐던 내용도 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최신 자료니 도움이 되지 않을까 (2019년 8월의 따끈한 신상입니다)? 그리고 다루는 교재도 내용이 괜찮은 데 반해 한국에서는 아직 번역된 것 같지는 않다.³ 새로운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자료

책 한 권만 보는 것은 아니고 논문도 보고 다른 책들도 여럿 보는데, 일단 교수님이 추천한 주교재는 다음과 같다. 이외로 추가될 수 있는 자료들은 별도로 포스팅과 함께 기재해놓을 생각이다.

- Frieden, Jeffrey, David Lake, and Kenneth Schultz, 2019. World Politics: Interests, Interactions, Institutions - Fourth Edition. W.W. Norton & Company: New York, London (이하 FLS).

주제

1. 들어가며 (Introduction)

- FLS Introduction
- Snyder, 2004. "One World, Rival Theories."

2.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What is International Relations?)

- FLS Ch.2.
- Ikenberry. Ch.2. "Varieties of Order: Balance of Power, Hegemonic, and Constitutional."

3. 국제적 상호작용의 게임 (Games of International Interaction)

- FLS "Primer on Game Theory." [Special Topic]

4. 죄수의 딜레마 극복하기 (Overcoming the Prisoner's Dilemma)

- U.N. Charter.
- Stewart, P. 2014. "The Unruly World: The Case for Good Enough Global Governance."

5. 국내정치, 주권, 그리고 국제관계 (Domestic Politics, Sovereignty, and IR)

- Putnam. 1988.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 Krasner, S. 2004. "Sharing Sovereignty: New Institutions for Collapsed and Failing States."

6. 집단 안보 (Collective Security)

- FLS. Ch.5.
- Goldgeier. 2010. "The Future of NATO."

7. 왜 전쟁인가? 거래/협상하기 (Why war? Bargaining)

- FLS Ch.3.

³인터넷 교보문고 기준. 검색일 2019년 8월 25일.

- Lake, D. 2011. "Two Cheers for Bargaining Theory: Assessing Rationalist Explanations of the Iraq War?"
 - Fearon. 1995.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8. 핵 확산과 대량살상무기 (Nuclear Proliferation and WMD)
- FLS Ch.14.
 - Joffe, J. 2011. "Less Than Zero."
 - "Getting Though on North Korea." 2017. Foreign Affairs.
9. 국가 내부의 분쟁 (Intrastate Conflict)
- FLS Ch.6, pp.236-268.
 - Denny, E. and Walter, B. 2014. "Ethnicity and Civil War."
 - Walter, B. 2009. "Bargaining Failures and CivilWar."
10. 테러리즘 (Terrorism)
- FLS Ch.6, pp.268-293.
 - Fortna, V.P. 2015. "Do Terrorists Win? Rebels' Use of Terrorism and Civil War Outcomes."
11. 내전에 관한 현행 연구들 (Current Research in Civil War)
- Thomas, J.L. and Bond, K. 2015. "Women's Participation in Violent Political Organizations."
 - Kalyvas, S. 2015. "How Civil Wars Help Explain Organized Crime - and How They Do Not."
12. 국내 분쟁의 해결 (Intrastate Conflict Resolution)
- United Nations -"Guidance for Effective Mediation"
 - Beardsley, K. 2008. "Agreement without Peace? International Mediation and Time Inconsistency Problems?"
13. 개입과 글로벌 집단행동 (Intervention and Global Collective Action)
- FLS Ch.11, pp.462-479.
 - Bellamy, A. 2008.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the Problem of Military Intervention."
 -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Syria And Beyond"
 - Power, S. "Bystanders to Genocide: Why the U.S. Let the Rwandan Genocide Happen."
14. 인권 (Human Rights)
- FLS Ch.12.
15. 경제제재 (Economic Sanctions): TBD
16. 국제정치경제 개관 (Over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 FLS Ch.7, pp.294-316.
 - FLS Ch.8, pp.346-360.
 - FLS Ch.9, pp.389-403.
17. 무역과 비교우위 (Trade and Comparative Advantage)
- FLS Ch.7, 340-345.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5. "The Future of U.S. Trade Policy."
 - Irwin, D. 2016. "The Truth on Trade: What Critics Get Wrong About the Global Economy."
18. 국제 경제제도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 FLS Ch.7, pp.324-334.
 - FLS Ch.8, pp.360-368.
 - Drezner, D. 2012. "The Irony of Global Economic Governance: The System Worked."
19. 해외직접투자자와 다국적기업들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 FLS Ch.8, pp.371-383.

- Pandya, S. 2016.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Globalized Produc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 통화와 통화정책 (Currency and Monetary Policy): TBD

21. 해외원조와 개발 (Foreign Aid and Development)

- FLS Ch.10, pp.424-453.
- Radelet, S. 2016. "Prosperity Rising: The Success of Global Development, and How to Keep it Going.?"

22. 기후변화, 식량불안, 그리고 빈곤 (Climate Change, Food Insecurity, and Poverty)

- FLS Ch.13, pp.540-568.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Chapter 2

Introduction

읽을 자료

1. FLS의 Introduction
2. Jack Snyder의 2004년 Foreign Policy 논문¹, “One World, Rival Theories”

국제관계 (International Relations)

여기서 우리는 국제관계를 세계를 무대로 하는 정치, 세계정치 (World Politics) 속에서 존재하는 정치적 단위들 (political units)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 IR에서는 종종 주요 정치적 행위자를 국가로 가정하는데, 격변하는 세계정치 속에서 국가 외의 행위자들의 존재는 분명히 부각되고 있다²는 점에서 그러한 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IR이 정치학의 다른 분야와 다른 점

IR은 일단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이때의 상호작용이란 직·간접적인 갈등과 협력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전쟁 (Wars), 동맹 (Alliances), 무역 (Trade), 투자 (Investment), 원조 (Aid) 등의 의제들이 있다.

동시에 IR은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는 정치적 현상들에 대해서도 다룬다.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기 (Financial crises), 인권 (Human rights) 문제, 국제사법체계 (international legal system)의 문제, UN이나 WTO와 같은 국제제도의 문제 등을 포괄한다.

이 강의의 목표

첫째로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세계정치라고 하는 조금은 추상적일 수도 있는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다.

¹ Snyder, J. 2004. “One World, Rival Theories.” Foreign Policy 145, pp. 52-62.

² 중재자 (mediator)의 역할, 인권단체 로비, 또는 테러조직의 활동 등



사진 출처: [링크](#)를 확인! 국문은 [여기](#) 더 알아보고 싶다면: [여기](#)

위의 사진은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에서의 화재에 관한 것이다.

- 최근 브라질은 G7 국가들이 열대우림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지원하기로 한 수백만 달러의 원조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캐나다는 2천2백만 달러를 지원하고자 하였고, 별개로 영국과 캐나다는 각각 1천2백만, 1천 백만달러의 원조를 약속하였다.
- 브라질은 화재가 충분히 통제가능하다고 주장하였지만 1월부터 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인접 국가들(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도 화재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 일련의 화재들이 브라질의 Bolsonaro 정부에 의한 환경 탈규제에 뒤따른 상업적 벌채 (commercial deforestation)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때,
- 이는 Bolsonaro가 이탈을 시사하고 있는 Paris Climate accord를 위배하고 있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행위자는 누구이고 그들의 이익은 어떻게 구성되며, 그들은 어떤 상호작용을 어떤 제도 위에서 행하고 있을까? 협력할까? 갈등할까? 그리고 어떤 분석수준이 이 의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할까?

둘째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퍼즐들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왜 국가들 간에 전쟁이 발발할까? 왜 시장은 실패할까? 과연 원조는 인권의 개선에 기여할까?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국가에 왜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지 않을까?

그림은 전 세계의 1946년부터 2016년까지의 무력분쟁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간 분쟁, 내전, 그리고 전체 분쟁의 트렌드를 보여준다. 이 플롯을 보고도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왜 글로벌 트렌드에서 전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까? 그리고 왜 유형별로 감소 수준이 다를까?

또, 우리는 국가를 넘어서는 국제체제 수준의 설명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비율(어떤 체제의 국가가 더 많은가)이 분쟁 발발 수준에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셋째로 우리는 단순히 어떠한 현상을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왜 나타났는지를 이론과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전략적 행태 (strategic behavior), 거래 (bargaining), 협력 (cooperation), 정치적 생존 (political survival), 그리고 집단행동의 문제 (collective action problems) 등.

- 거래 (bargaining)이란 쉽게 말해 제로섬 게임을 생각하면 된다. 거래를 할 가치의 총합이 정해져 있고, 그걸 사이에 두고 각 행위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몫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명이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행위자에게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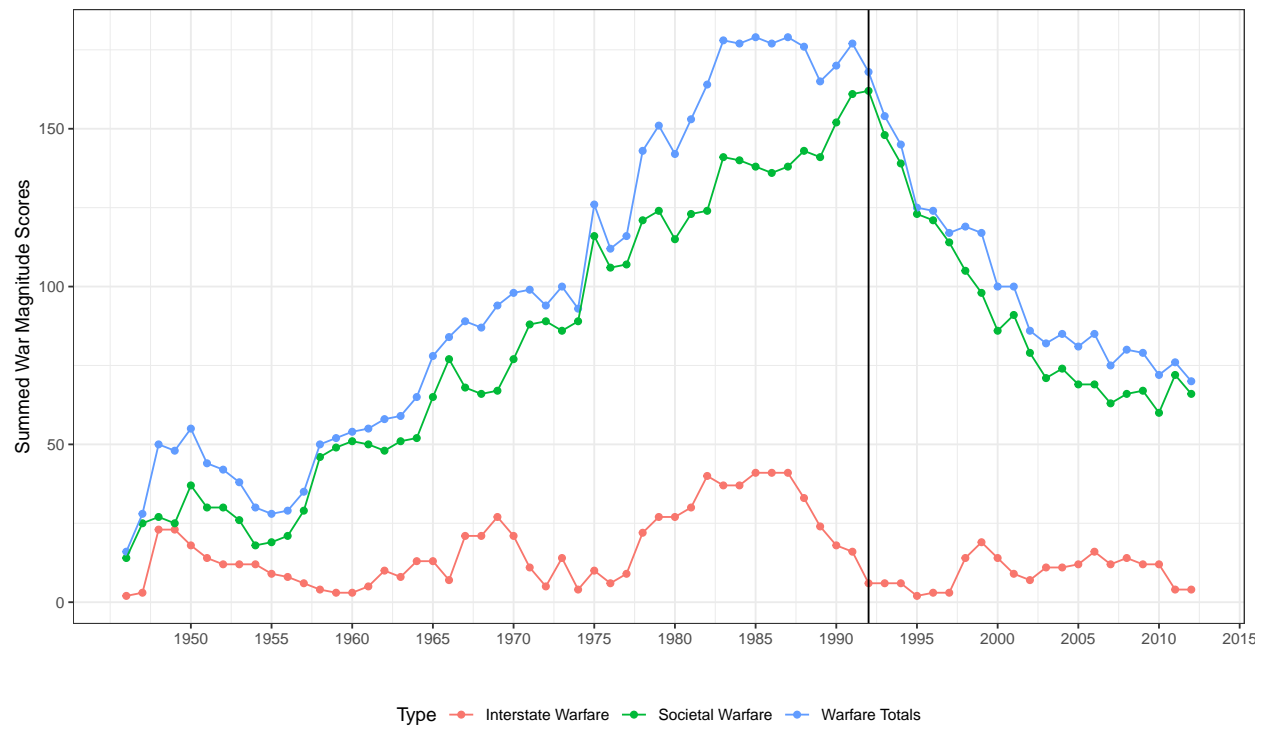


Figure 2.1: Global Trends in Armed Conflict, 194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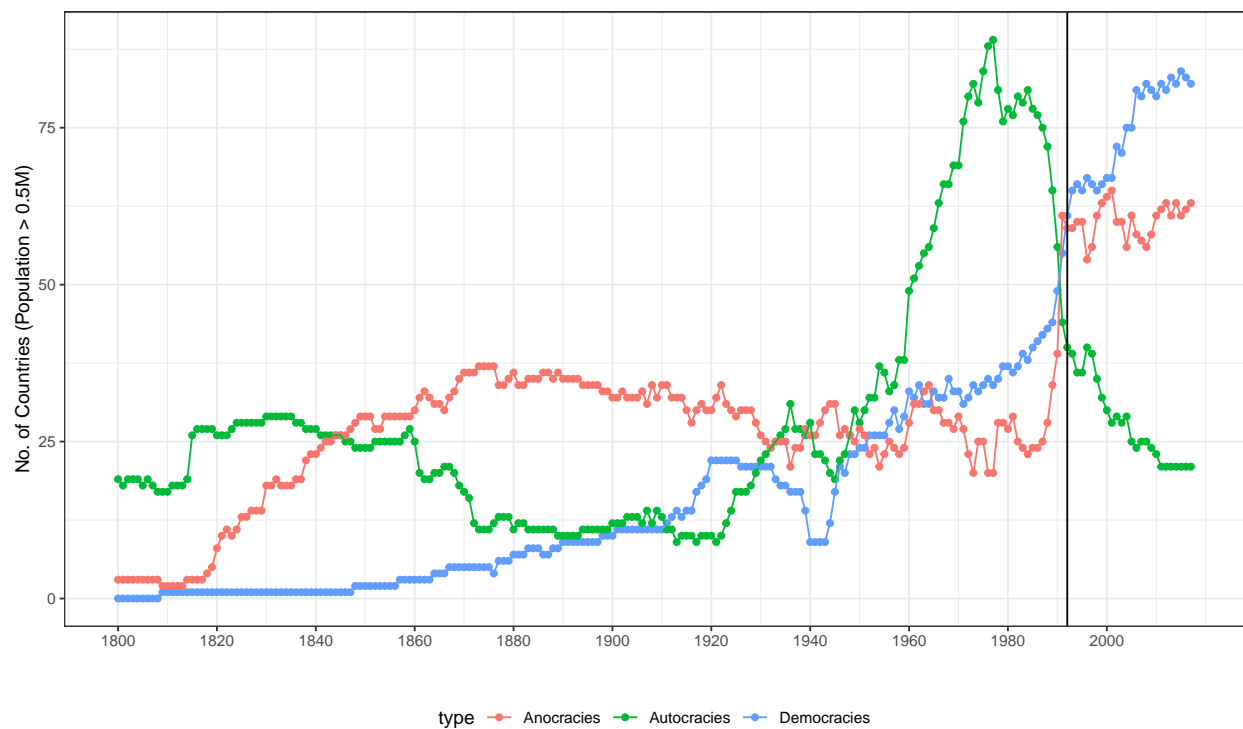


Figure 2.2: Global Trends in Governance, 1800-2018

- 협력(cooperation)은 최소 한 명의 행위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현상유지보다 나은 몫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누구도 협력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좀 더 크게 한 번 들어가서, 정치란 무엇인지 얘기해보자. 이 강의의 대전제로 정치(politics)란 사회 내에서 누가 무엇을 갖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조금 확장해보면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국가라는 기준을 놓고, 국가 내 정치와 국가 간 정치의 영역이 있다고 할 때, 각자의 영역에서 '결정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 국가 내 정치 vs. 국가 간 정치
- 국가의 정부 v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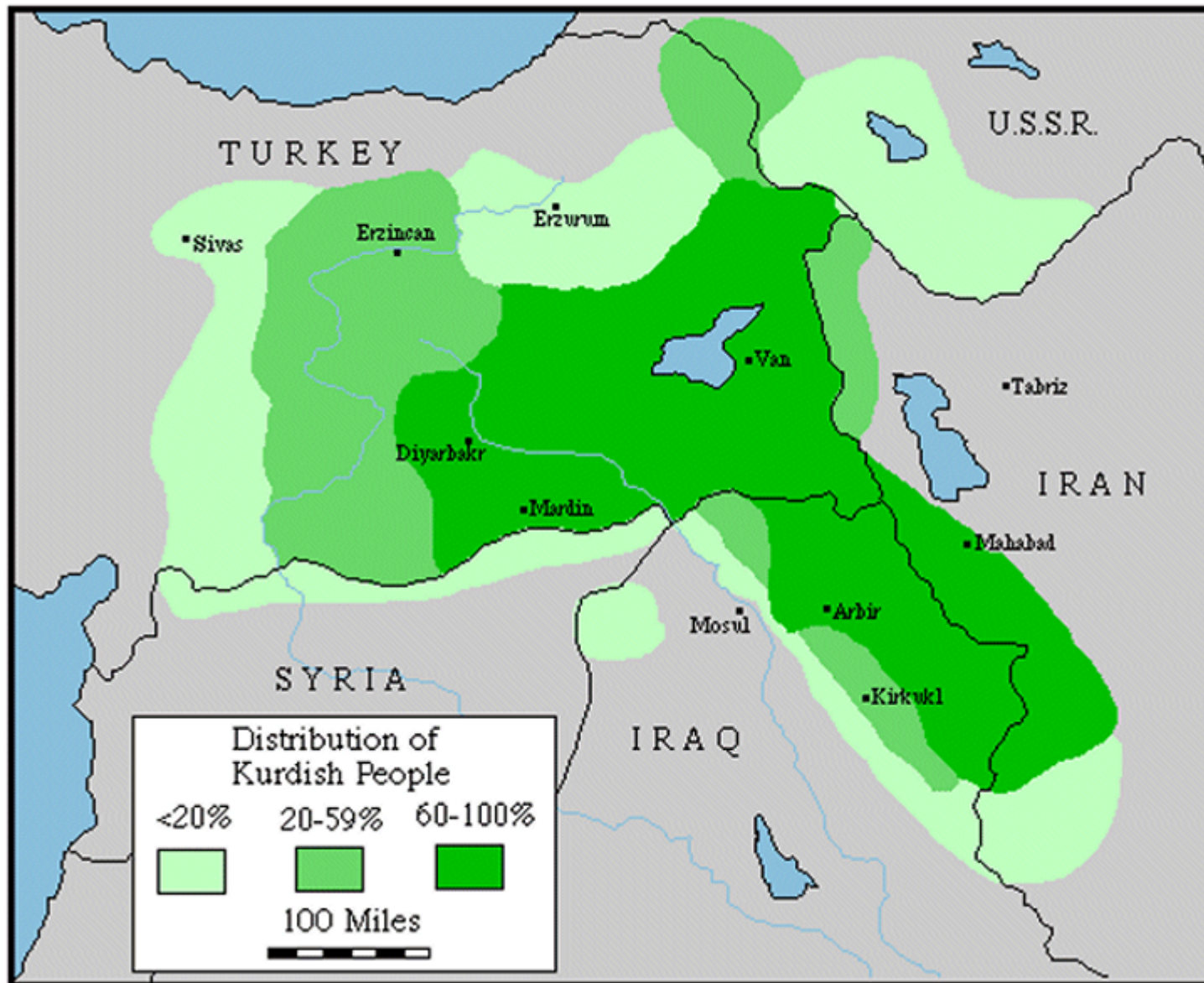
물음표로 적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어떤 국가가 무엇을 가질지, 혹은 포기해야할지를 강제하는 제도적 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를 IR 학자들은 무정부 상태(Anarchy)라고 정의하고 있다. FLS의 내용을 다루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IR 개관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몇 가지 정의(definitions)를 선행하고 가도록 하자.

Nations vs. States

이건 한글로 적기 애매해서 그냥 영어로 적었다. 굳이 표현하자면... 민족과 국가?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민족성과 국가정체성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민족-국가(nation-state)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민족, 한민족이라는 말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은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 Nations (민족): 국경을 넘어서 정체성과, 문화 등을 공유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집합
 - 민족은 물리적 지형에 구애되지 않으며 반드시 국가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 예를 들어, 쿠르드 민족은 국가 없이 터키, 이란, 이라크 일부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다.
- States (국가): 단 하나의 민족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영토적 경계를 가진다.
 - 이라크는 수니파, 시아파, 그리고 쿠르드족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 [그림](#)을 참고.

```
knitr::include_graphics("../Territory.png")
```



그럼 여기서 주권 (Sovereignty) 의 논의로 넘어가보자.

주권의 기원 (Origins of Sovereignty)

민족, 국가, 혹은 민족국가 모두 IR에서 국가로 정의되는 단위는 주권을 갖는다. 이 주권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지속된 30년 전쟁의 결과로 수립된 것이다. 이 전쟁이 종결되며 형성된 웨스트팔리아 체계는 구 가톨릭 세력을 대변하던 가톨릭 교회와 합스부르크 왕가 세력이 결국 신교 세력과 독일의 제후들과의 전쟁에서 합의를 함으로써 기존에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조세권 등을 국가 단위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행위자들의 이익의 문제는 조세권과 국가 영토 (boundaries) 를 결정하는 문제였고, 그 결과 더 이상 각 국가의 사정에 타국이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는, 근대 주권국가의 체계가 수립된 것이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의 평화로 찾아온 이 주권체계는 대내적, 대외적 측면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 주권은 해당하는 영토에 대한 최우선적이고 최고의 통제권을 의미하며, 대외적으로 그것이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무정부 상태

그럼 다시 무정부 상태로 돌아와보자. 무정부 상태란, 이러한 주권개념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모든 국가들의 주권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다른 국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부재하게 된 것이다. 즉, 국가 위의 국가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들이 각자 어떠한 제도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 있다. 다만,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치학 영역에서 합의된-권위있는-단 하나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Keohane, Krasner 등이 말하는 IR에서의 제도, 레짐의 개념과 또 CP에서의 개념이 또 다르다.

그럼 대체 IR 학자들은 뭘 하는건가?

이론적 관점에서 국제적 행위자들(international actors)이 어떻게 행위하는지에 대한 인과적인 주장을 제시한다.

- 인과적 주장이란 단지 그 현상이 어떠한 것이라고 기술할 뿐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진술을 의미한다.

우리는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리를 보전하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ctor)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 그러므로 그런 행위자들은 (i) 국내적 이익, (ii)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지도자들은 대외적으로도(abroad)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존재할 것이며,
-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제적 제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학자들은 동시에 이러한 주장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검증이란 실제 세계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론적 주장을 지지 혹은 기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때론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반영되고는 한다. 그럼 대체 이론이란 뭘지, 한 번 자세하게 들어가보자.

이론 (Theory)

이론이란 우리가 관심을 갖는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적으로 연관된 진술들의 집합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현상(IR이니까 전쟁, 국제협력 등?)이 나타나게 된 원인들에 대한 잠정적인 추측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론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자(factors)가 무엇인지를 특정한다.
- 그리고 이러한 인자들을 한 데 모아놓았을 때, 어떻게 연구패즐을 설명하는지를 보여준다.
- 이론은 왜 그 현상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현상의 발생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
- 이론은 설명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기능들을 수행한다.
 - 서술(description): 이론은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규정함으로써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서술한다.
 - 예측(prediction):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는지, 한 요인의 변화가 행위와 결과에 있어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설명의 원인을 통하여 미래의 결과를 제공한다.
 - 처방(predescription):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정책적 대응이다.
- 이론은 복잡한 현상에 대해 간략화된, 다루기 쉬운 설명들을 제공한다.
 - 원인(예측변수들; predictors, independent variables)이 결과(outcomes, dependent variables)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본다.

다만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인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단정적 이론을 구축할 수 없다. “모든 단일 사례에 들어맞는 일반화된 설명은 없다.” 결국 우리는 특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들에 대한 확률적 주장, 확률적 설명을 하게 된다.

- 즉, 사회과학이론은 단정적/결정적이라기보다는 확률적인 진술로 구성된다.
- 그리고 대개는 다변량의 형태를 취한다: 여러개의 예측변수들을 가지고 결과와의 관계를 본다.
 -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라는 조건을 취한다.
 - 왜? 실제 세계는 실험실과 달리 단 하나의 인자가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독립적으로 떼어내어 볼 수 없으니까.

- 이러한 노력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적인 사실들(empirical facts) 간의 관계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가설을 검증한다.

- 정량적인 사례연구(case study), 소규모(small-n)-대규모(large-n) 정량연구 등

분석틀: 이익,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

분석틀은 세계정치에 대해 생각하는 한 방식으로 연구퍼즐과 관련하여 이론을 구축하는 데 유용하다. 우리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이익, 상호작용, 제도)을 가지고 분석틀을 구성한다.

- 이익(Interests):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이며,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결과이다.
- 상호작용(Interactions): 둘 이상의 행위자들이 정치적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의 결합.
 - 즉, 둘 이상의 행위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서로 행동하다가 교차하면, 그게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가 관측하는 결과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많은 행위자들의 선택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 제도(Institutions): 정치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일련의 규칙들이다. 그리고 그 규칙들은 공동체 안에서 알려지고 공유된 것이다.
 - 제도는 게임의 규칙으로 정의되며, 공식 조약과 법규, 또는 UN과 같은 단체들에 포함된다.
 - 제도는 순응 여부를 감시하거나 규칙을 위배한 이들을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짜여지는 분석틀은 유연하고, 실용적이며, 개방적이다. 분석틀은 어떠한 이익,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가 중요한가에 대한 다르게 가정하더라도 적용가능하다.

- 이론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건, 혹은 사건의 패턴과 관련된 특정한 이익,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를 규정할 때 나타난다. 즉, 무엇을 연구할지, 그리고 그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 개념을 정의할 때,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될 때 이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이 마땅히 그려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개념들은 '가정된다.'
 - 가정의 수정이란? 예를 들어, 때때로 국가들은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자들처럼 간주되는 것이 유용하다. 이때의 목표는 권력, 안보, 또는 영토 확장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
 - 우리는 가정이 연구퍼즐을 설명하는데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의 여부만을 판단한다.
- FLS는 두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1. 거래(Bargaining): 둘 이상의 행위자가 다른 상대방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선택해야 하는 상호작용의 유형.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한정된 가치를 분배하는 문제로, 내가 얻으면 상대방이 잃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2. 협력(Cooperation): 행위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된³ 방식의 행동을 필요로 할 때 나타난다. 누구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현상유지에 비하여 최소 한 사람이라도 개선된 결과를 갖게끔 하는 정책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 보면 알겠지만, 거래와 협력은 정치적 삶(political life)의 일상에서 나타난다.

FLS는 또 국내 수준의 제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즉, 누가 그 국가를 통치하는지,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 국내 정치제도는 어떤 행위자들이 권력에 접근성을 가질지,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영향을 미친다.
- 국내 정치제도의 차이는 세계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여기서 분석수준의 문제가 나타난다.

분석 수준 (Level of Analysis)

세계정치 내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활동하고, 제도들이 작동하고 있다. 즉, 이는 우리가 다음의 세 수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상호작용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분석수준이라고 하면 국가 단위, 국가 하위의 단위, 혹은 한 국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time-series), 국가-연도 별 변화, 개인(individuals), 혹은 거대한 국제체계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어느

³Coordinated. 의역하면 상대방과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치학에서는 종종 쓰이는 데, 예를 들어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라는 용어의 경우 시장 논리에만 경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주체—국가와 시민사회가 일정 부분 시장의 영역에 개입하여 작동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수준에서 분석 수준을 설정할 것인가는 분석의 결과를 어느 수준에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단, FLS에서는 분석수준을 세 층위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국제적 수준 (international level)
 - 서로 다른 이익을 가진 국가의 대표들이 상호작용
 - UN이나 WTO 같은 국제제도의 맥락에서 상호작용을 하고는 한다.
- 국내적 수준 (domestic level)
 - 서로 다른 이익을 가진 국가 하위의 행위자들이 상호작용
 - 정치인, 관료, 기업, 노동조합, 유권자 등
 - 국가의 대외정책 선택을 결정하는 국내 제도 내에서 상호작용
- 초국가적 수준 (transnational level)
 - 국경을 넘어선 구성원들을 가진 단체들
 - 다국적 기업, 초국적 옹호 네트워크, 테러집단
 - 이러한 단체들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모두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익을 추구
 - 따라서 초국가적 행위자들은 모든 수준에 영향

이 세 수준은 상호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단 하나의 분석수준이 다른 수준들에 비해 우위에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FLS는 연구문제를 풀기 위한 유용한 설명을 구축하기 위한 2단계의 상황식 방식을 제안한다.

1. 국내 수준의 이익,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는 국제관계에서 활동하는 국가 대표들⁴의 이익을 결정한다.
2. 이러한 이익들은 국제적 상호작용과 제도 속에서 서로 결합하여 최종 결과물로 이어진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국제관계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사조/학파로 분류되고는 한다. 이 세 가지 '-주의'들은 국제정치의 속성에 대해 서로 다른 세계관을 대표한다. 각각의 학파는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익,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를 가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현실주의 (Realism)

현실주의의 관념은 다음과 같은 이들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투키디데스 (BC 460-400)
- 마키아벨리 (1469-1527)
- 홉스 (1588-1679)
- 장자크 루소 (1712-1778)

현실주의는 두 가지 핵심가정에서 출발한다.

1.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주도적인(dominant) 행위자이다.
 2. 세계정치의 제도적 설정(setting)은 무정부 상태(anarchy)로 특징지어진다.
- 무정부 상태:
 1. 국제체제에서 중심이 되는 권위체가 부재한 것을 의미한다.
 2. 시민들을 통치하는 정부가 있는 개별 국가들과는 달리, 국제관계에서는 국가들을 규율하는 세계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 현실주의자들은 무정부 상태가 세계정치에서 중요한 이익과 상호작용을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 국가들은 항상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 논리는 직관적이고 단순하다. 군사력 사용을 단속할 수 있는 외부의 권위체, 제약이 전무한 상황에서 모든 국가들은 최우선적으로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추구하게 된다.
 - 따라서 국가들은 안보(security)에 이익을 갖게 되고, 그 이익은 다른 어떤 이익에 우선한다.
 - * 국가가 안전하지 않다면 다른 어떤 목표도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⁴State representatives. 아까 앞서도 종종 국제관계 연구에서는 국가를 행위자처럼 가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어떤 상황 하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와 같은 진술이다. 과연 미국이 단일한 이익을 가진 하나의 행위자일까?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 내부의 어떤 행위자(주로 엘리트)의 이익을 국제관계에서의 그 국가의 이익으로 치환하여 가정하고 사용하곤 한다.

- * 현실주의는 국가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권력'(power)라고 이해한다.
- * 특히 그 권력은 군사적 역량(military capabilitie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권력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갈등 상황으로 밀어넣게 된다.
- * 한 국가가 안보 증진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웃국가의 안보를 저해하게 되고, 이에 이웃 국가가 다시 군사력을 증강하는 쳇바퀴의 문제 →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 현실주의자들이 보는 국제관계의 자연상태(state of nature)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 국가들의 대개의 상호작용이란 거래(bargaining)와 강압(coercion)에 관련된 것이다.
 - * 어떤 한 국가의 이익은 다른 한 국가의 손해와 연결된다: Zero-sum game
 - * 현실주의자들은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정적 이익이 클라도, 국가들은 이익의 총량보다 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상대적 몫을 더 우려한다.
 - * 결과적으로 국가들은 자기가 상대방보다 열위에 놓일 것을 걱정해 호혜적인 교환도 꺼리게 된다.
 - 협력은 어렵고,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국제관계의 무정부성 때문에 국제제도들의 역할은 약하고, 세계정치에 있어서 독립적인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한다.
 - 국제제도들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 어떨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국가들은 자기이익과 권력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 국내외의 제도들은 지속적인 평화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
 - * 전쟁은 외교 및 일시적 동맹을 통해서만 관리될 수 있다.
 - 종종 경제학자들은 자유로운 상업이 국가들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무역과 자본 흐름에 대한 규제가 국가의 상대적 권력을 제고, 또는 유지하기 위한 지표라고 이해한다. → 즉, 흐름이 자유로운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와중에 행해지는 규제를 국가 간 권력의 이슈로 들여다본다.

자유주의 (Liberalism)

자유주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이들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존 로크 (1632-1704)
- 임마누엘 칸트 (1724-1804)
- 아담 스미스 (1723-1790) & 데이비드 리카르도 (1772-1823)⁵
- 장자크 루소 (1712-1778)

자유주의는 이 책이 취하는 접근법과 가장 밀접한 사조(strand of thoughts)이다.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세계정치에서 다양한 서로 다른 수준의 행위자들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 개인, 기업, 비정부단체, 국가 등 이들 모두가 국제관계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 어떤 하나의 이익이 다른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가정하지 않고, 행위자의 목표에 대해서도 현실주의보다 유연하게 간주한다
 - 현실주의는 안보/권력 추구만이 최우선 이익이라고 본다.
- 자유주의자들은 국내 정치제도 내에서 활동하는 서로 다른 국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정부의 이익이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 종종 행위자들을 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존재(wealth maximizer)로 묘사하기도 한다.
- 세계정치/국제관계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 행위자들이 많은 분야에서 협력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공통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국가들은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통의 이익을 가진다.
- 국경에 걸쳐 재화와 돈의 흐름이 가능하게끔 장벽을 낮추는 것과 국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윤이 되는 교환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 행위자들이 더 나은 공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국내외 제도들에 의해 좌우된다.
 - 국내 제도 수준에서,
 - *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 하에서 이익의 조화를 암묵적으로 반영하는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 * 거칠게 일반화하자면, 민주주의 → 개인의 재산권/자유 보장 → 선거로 인한 표심 고려 → 권위주의보다 협력 친화적 제도
 - 국제 제도 수준에서,

⁵전자는 노동에서의 분업과 특화(division and specification of labor)를, 후자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라는 공전절후의 업적을 남겼다.

- * 협력의 범위는 제도에 대한 수요에 좌우된다.
- * 자유주의는 국제제도가 국가들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고 국가들로 하여금 집단적 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협력을 증진시킨다고 본다.
- * 세계는 진보하고 있다는 관점

구성주의 (Constructivism)

구성주의의 관념은 다음과 같은 이들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피터 카젠슈타인, 존 러기, 그리고 알렉산더 웬트 등이다.⁶
- 보면 알겠지만 다른 두 사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최근에 체계가 잡혔다.

구성주의는 자유주의처럼 세계정치/국제관계에서 행위자와 이익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구성주의자들은 국제제도는 유효할 뿐 아니라 행위자와 이익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 이익의 물리적 측면(예를 들어, 물질적 부)보다는 비물질적 요인(예를 들어, 관념/문화/규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행위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정되고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다.
 - 그러나 행위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 그들 사이에 널리 퍼진 관념, 그리고 정체성 또는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은 고정적이다.
 - 국가들이 공통적인 혹은 상충되는 이익을 인식하는지 여부는 그들이 공통의 정치/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좌우된다.
 - 구성주의의 한 지파는 규범의 역할, 또는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으로 정의된 행위의 준거를 강조한다.
- 구성주의는 행위자들이 자신이 누군지, 혹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았으면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그들 자신이 믿는 옳고 그름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 요컨대, 어떤 행위자의 경우는 특정한 행태 규준에 순응하고자 하는 욕망이 다른 이익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새치기를 하면 빠르게 표를 살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순응의 욕구가 그 이익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
 - 구성주의자들이 보았을 때, 제도는 행위에 맞는 규칙을 포괄하며, 행위/관측된 결과들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 * 국제제도에 대한 순응은 그렇게 ‘순응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욕구에 좌우된다.
 - * 옳은 혹은 적절한 행위에 관한 관념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주의자들은 변화를 위한 중요한 잠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 * 행위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다르게 이해한다면, 적절한 행동의 개념 역시도 변화할 수 있다.
 - * 구성주의자들은 “타인의 행태를 변화시키는/변화시킬 수 있는”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특히 강조한다.

위와 같은 관점/접근법/이론들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얼마나 잘, 밀접하게 서술하는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 각자의 사조는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지혜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세 접근법들은 각자 어떤 이익,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가 중요한가에 대한 견고한 가정을 수립한 결과로 지적 순수성 (intellectual purity)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설명력과 유연성의 일부를 희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접근법, 혹은 이론의 옳고 그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고자 하는 연구문제, 세계정치/국제관계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접근법을 이익,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에 관한 가정들을 검토하여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

Table 2.1: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이익	상호작용	제도
현	국가는 주도적인 행위자이다. 국가는 안보	국제정치는 강압 (coercion)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며, 제도는
실	그리고/또는 권력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거의 독립적 효과를 행사하지 못한다.
주	국가의 이익은 서로 충돌한다.	거래의 장이다.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한다.
의			

⁶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John Gerard Ruggie, *Constructing the World Polity: Essays on International Institutionalization* (New York: Routledge, 1998);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이익	상호작용	제도
자유주의	여러 유형의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그들 모두 중요하다. 부(wealth)는 많은 행위자들의 공통된 목표이다. 행위자들은 종종 협력의 기반이 되는 공통의 이익을 가진다.	국제정치는 협력의 확장된 영역이다.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행위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인지하거나 행동하는 데 실패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국제제도는 규칙을 설정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집단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를 만듦으로써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정치제도는 개개인의 공통된 이익을 반영하는 국제정치의 영역을 증대시킨다.
구성주의	여러 유형의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그들 모두 중요하다. 행위자들의 이익은 문화, 정체성,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행위자들은 선택은 종종 이익보다 적절한 행위에 관한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	상호작용은 행위자들이 특정한 이익을 갖게끔 사회화하나 그 이익은 이익에 대한 대안적인 이해가 등장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국제제도는 정체성을 정의하고 정의롭고 적절한 행동에 대한 규범을 통해 행동을 형성한다.

하나의 세계, 경쟁 이론들 (One World, Rival Theories)⁷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는지를 말해주고자 한다... 급변하는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이론들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Jack Snyder

Jack Snyder (이하 Snyder)는 이 짧은 페이퍼를 통하여 FLS와는 조금 다른 논조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주요 시각들(관점들)을 사건들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페이퍼가 시작할 무렵의 그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9.11 테러는 이론의 실패, 나아가 우리의 지성과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가?”

학계는 그간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 이론들로 새로운 현실을 설명하는 끊임없는 수정의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자리잡은 세 주요 접근법이 바로 FLS에서도 살펴보았던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다.⁸

대단하신 학자 Walt께서는 이 주요 접근법에서 나온 이론들이 공격 논의와 정책적 분석 모두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현실주의는 국가들 간의 권력 배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민주주의로의 체제변동을 강조하고,
- 관념론은 주권, 인권, 그리고 국제적 정의와 정치에 있어서의 증가하는 종교적 관념의 유효함을 제시해왔다.

이런 지적 전통들은 비단 대학 강당을 넘어서 현실 세계의 정책고안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Bush 행정부의 Condoleezza Rice는 Bush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실리적 현실주의의 (pragmatic realism)와 Woodrow Wilson의 자유주의 이론의 결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뭐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해서 가져다 붙인 것 같지만.

또, 2004년 여름에 신보수주의(neoconservative) 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 두 사람, Krauthammer라는 칼럼니스트랑 Francis Fukuyama가 대화를 나눈 바 있는데 Iraq에 대한 미국의 정책의 개념적 패러다임에서 충동을 빚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Krauthammer는 Bush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을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결합으로 주장했다. 요컨대 민주주의적 현실주의라는 것이다.
- 반면에 Fukuyama는 Krauthammer가 가지고 있는 무력 사용에 대한 믿음과 이라크를 민주화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로 하여금 정당성이 결여된 전쟁으로부터 눈을 가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뭐, 개념들만 떼어놓고 보자면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Krauthammer가 말한 민주주의적 현실주의라는 용어가 영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지 이론의 특정 개념들을 도식적으로 떼어 결합한 뒤 명명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 언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현실주의
 - 현실주의는 9.11 이후에 다시금 강한 지지를 얻기 시작하였다.
 - 군사력 중심과 갈등의 지속—현실주의에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들이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사실 현실주의는 그들의 주요한 가점인 “국가행위자”를 위배하는 존재, al Qaeda와 전쟁을 선포한 미국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⁷Snyder, J. “One World, Rival Theories.” Foreign Policy No. 145. pp.52-62.

⁸Snyder는 구성주의를 “최신화된 형태의 관념론의 하나 (An updated form of idealism)”라고 기술하고 있다.

- 그들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국가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 내에서의 권력 분포의 변화이다.
- 근데 al Qaeda는 비정부단체로 그 어떤 국가보다도 미국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던 것이다.
- 따라서 9.11은 현실주의의 또 다른 주요 개념인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의 적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 현존하는 어떠한 국가들이 뭉치더라도 미국에 군사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어떤 국가도 미국이 Iraq를 상대로 군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 자유주의
 - 자유주의는 국가들 간의 관계가 무역과 금융과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 유대가 강화되면서 민주적 규범이 확산되고, 이로 말미암아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
 -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민주주의는 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전쟁에 임하기가 어려워진다.
 - * 시민들 중에 누가 전쟁하자고 하면 좋다고 투표해줄까?
 - * 따라서 이런 기대는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국가들 끼리는 서로 정당하고 위협이 안된다고 보니까 전쟁위험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게 된다.
 -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체제의 법치 (rule of law)와 투명성은 국제협력, 특히 다자간 제도 하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하였다.
 - 여기서 신보수주의에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결합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 * 현실주의 (자국의 안보 추구) + 자유주의 (민주주의 → 안전) = 위협이 되는 국가를 민주화시키자라는 괴상망측한 결론에 도착해버리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주권은 안중에도 없냐.
 - 그러나 분명히 오랜 시간동안 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은 국제관계의 변명을 가져다 준 하나의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 * 민주주의↑ → 경제발전 (번영)이라는 데에는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분명 전세계적으로 냉전 이후 민주화의 물결이 일었던 것은 사실이다.
 - 민주화를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정치제도의 기반이 약한 국가가 민주주의로 이행한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들보다 더 국내외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구성주의 (Constructivism)
 - 대외정책이 윤리적, 그리고 법적 준거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 사회적 현실 (social reality)라는 개념을 던지는데, 이는 국제관계의 현실이 관념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현실주의가 세력균형에 집착하고, 자유주의가 국제무역과 민주주의의 힘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 구성주의자들은 관념 이야말로 국제적 삶 (international life)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왔다.
 - * 이들은 개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관념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 * 현실주의자들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여겨온 국익 (national interests)도 이들은 관념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 따라서 이들은 국제적으로 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이들, 초국가적 행위자들에 주목한다.
 - *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9.11 이후에 이론적 설명으로 초국가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주의적 인권 운동과 급진적 이슬람 운동 간의 대화를 통해서 관념이 공유되고 변화되면 충돌을 완화할 수 있을거라고 주장하는 데 까지 간다.

정리하자면

Snyder는 IR의 이론적 전통에 대해 개관을 제시하고 있다.

- 각각의 전통들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 대외정책에 있어서 함의를 가지고 있고
- 정치학자들 간에 그 전통을 따르는 지지자들 (감소하는 추세지만)⁹을 가지고 있다.

1. 현실주의

- 냉엄한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갈등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 냉전의 종식을 설명하지 못했다.
- 권력의 산술에 바탕을 둔 정책이 지속되기에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2. 자유주의

⁹Mearsheimer 옹 같이 내 지적 전통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IR 학자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대개는 연구문제에 맞춰 그것을 풀기에 유용한 접근법을 그때그때 취하는 것 같다. 물론 어떤 접근법에 좀 더 지향적이냐는 본인 취향이겠지만.

- 국가들이 민주화가 된 이후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을 제시한다.
- 민주화 되기 이전, 변동 타이밍이나 평화적 민주화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 갓 만들어진 민주주의 제도가 그것을 공격하는 이익—적폐 세력? 과 같은 이들의 공작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국제제도가 제멋대로 하려는 패권세력을 제약할 수 있을지를 설명해야 한다.

3. 구성주의

- 규범과 관념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설명한다.
- 새로운 가치와 관념에 대한 합의가 나타나기 위한 그런데 물질적 배경, 제도적 환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
- 일련의 관념들이 자리잡을 수 있는 전략적, 제도적, 물질적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모든 대이론 (grand theories) 들은 구조적 (“체계” 나 “국제”)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구조가 무정부적이나 혹은 위계적이나?
 - IR을 자력구제 (self-help) 체계로 이해할 것인지 (=무정부적)
 - * 단, 무정부 상태가 혼돈 상태 (chaos)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아니면 질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인지 (=위계적)
- 또는 국가 간의 힘의 분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국가의 목표는 무엇인지 (모든 국가들의 목표는 동일할 것으로 주로 가정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 국가 (States; Countries): 지리적으로 영토를 갖고 있으며 정치제도로써 정부를 가지고 있는 단위
- 이익 (목표), 제도 (규칙), 상호작용 (전략적 행태): 어떤 결과를 가지고자 하는가?
- 거래와 협력
 - 거래: 양 쪽에 무언가를 분배하는 행위; 재분배적; 단,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뺏어야만 하는 조건
 - 협상: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조정의 노력: 최소 한 명의 행위자는 더 나은 상황을 마주하고, 아무도 상황은 악화되지 않는 조건.

Chapter 3

What i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Games of International Interaction?

읽을 자료

1. FLS의 Chapter 2.
2. Ikenberry. After Victory 중에서 Ch.2. "Varieties of Order: Balance of Power, Hegemonic, and Constitutional."
3. FLS "Primer on Game Theory." [Special Topic]
4. U.N. Charter
5. Stewart, P. 2014. "The Unruled World: The Case for Good Enough Global Governance."

IR의 거대이론(Grand theories)

제2장에 이어서 IR의 거대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해보자.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주의

현실주의에서 주요 행위자는 국가이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최우선 목표가 생존(survival)이라고 보고 다른 국가들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러한 생존의 추구는 힘의 추구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성 권력(hard power)의 일환으로서 군사력(military power)을 갖추는 것은 국가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동시에 국가들은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보다는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을 더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본다.

- 상대적 이득과 절대적 이득
 -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는 재분배와 거래의 문제에 있어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본다.
 -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의도가 확실하지 않고(다른 국가를 속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가 자국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협력보다는 갈등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 힘의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ies)가 중요하다.
 - 패권(hegemony)/일극(unipolarity) 체제와 양극체제(bipolarity)가 다극 체제(multipolarity)보다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 * 다극 체제와 안정성에 관한 논의는 Ikenberry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이러한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은 중국을 위협으로 보느냐에 대한 [존 미어사이머의 인터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자들에게 국제관계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란 보다 갈등적 상황(전쟁, 분쟁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제도는 행위자들의 근본적인 목적과 그에 입각한 행위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들은 생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생존을 넘어서 경제성장과 같은 번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 자유주의자들에게 군사력이란 결국 한정된 효용(limited utility)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 이들은 연성 권력(soft power)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들은 심지어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라는 조건 하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임마누엘 칸트).

- 미래의 그림자(Shadow of the future)
 - 국제관계에서 상호작용은 일회성이 아니다.
 - 따라서 국제관계의 행위자들은 갈등보다는 서로 협력을 통해 서로 이득을 보고자 할 것이다.
- 즉, 현실주의자들과는 달리 자유주의자들은 상대적 이득보다는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을 강조한다.
-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관계의 행위자들은 함께 행동할 유인(incentives)을 가지게 된다.

심지어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도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들이다. 즉, 자유주의자들은 국제제도, 초국적 옹호 네트워크(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등의 역할이 국제관계의 양상에 미치는 역할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자들에게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익이란? 현실주의자들과 달리 단일한 것(=survival)이 아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갈등적 양상뿐 아니라 협력적 양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나아가 이들은 그러한 협력에 있어서 존재하는 다른 국가들의 의도를 알 수 없으며(uncertainty), 서로의 약속을 강제할 권위체가 부재하다는 문제(anarchy → commitment problem)를 제도로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에게 국제제도에는 그에 속한 국가들 간의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공통의 규범과 규칙을 제약함으로써 행동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는 주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

구성주의자들은 국제관계에서 이익이란 결국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에게 국가의 행태란 규범, 신념, 그리고 정체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국제적 상호작용은 국가들에게 이러한 규범, 신념, 정체성을 “사회화”(socialize)하는 과정이다.

- 그러나 규범은 시간에 걸쳐 변화할 수 있다.
- 구성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개념은 국가들의 이익과 관행(practices)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예를 들어, 인권의 침해나 기후변화와 같은 사례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 인권과 기후변화에 대한 규범 및 관행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변화된 사례들이다.

구성주의자들에게 관념과 담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제정치에서의 동일한 구조는 서로 다른 국가들에게 서로 다른 시점에서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A라는 국가는 무정부 상태 하에서 현실주의자가 주창한 것처럼 갈등적 상황, 생존을 최우선 이익이라고 추구할 수 있다. 반면 B라는 국가는 같은 시기에 같은 무정부 상태라는 조건 하에서도 번영을 추구하며 협력적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Wendt는 “무정부 상태란 국가들이 구성해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분석틀로서 구성주의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관념, 규범, 정체성, 그리고 변화 중에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알 수 없다는 잠재적 내생성(possible endogeneity)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리하자면, 구성주의자들에게 이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념, 규범, 정체성 등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관계의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은 이러한 관념, 규범, 정체성의 변화를 각 행위자들에게 ‘사회화’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제도도 사회화의 기제라는 맥락에서 구성주의자들에게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거대이론들에 대한 평가

하지만 이러한 거대이론들이 왜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로부터 점차 관심을 잃게 되었을까? 거대이론들은 대개 국제적 수준, 혹은 구조적 수준에서 독립변수들을 설정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대개 거의 변하지 않는 것들이다.

- 몇몇 학자들은 여전히 거대이론들로 세계정치의 현상들을 분석하고자 하고 있다(예를 들면, 미어샤이머?). 그러나 거대이론들을 분석틀로 사용하는 이들도 그것을 직접적인 현상 분석에 적용하지는 않는 추세다.

이는 세계정치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현상, 즉 결과들이 상대적으로 새롭고, 변화하는 것에 비하여 본다면 과연 결과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열쇠(key) 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관계 학자들은 최근 분석의 수준을 국내정치, 그리고 개별 지도자 수준으로 옮겨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거대이론들은 실제로 냉전의 종식(1989-1990년)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많은 학자들이 이론의 범주를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ies)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왜 체계이론/거대이론들은 냉전의 종식을 설명하지 못했던 걸까?

정치적 질서의 다양성 (Varieties of Political Order)

Ikenberry는 세계적 질서(world order)의 등장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적 질서에 대한 개념은 Hadley Bull에서 비롯되었다.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질서(political order)란 “일단의 국가들 간 존재하는 통치의 장치(the governing arrangements among a group of states)”를 의미하며 규칙(rules), 제도(institutions) 등을 의미한다.

Ikenberry는 국제적 질서의 세 가지 중요한 교리(tenets)는 바로 (1) 조직화의 원칙(organizing principles), (2) 힘에 대한 제한(restraints on power), (3) 안정성의 근원(source of stability)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 중 Ikenberry가 말하는 힘(power)이란 FLS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 A라는 행위자가 B라는 행위자가 하지 않을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능력
 - 또는 B라는 행위자에게 양보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
 - 혹은 A가 양보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능력

그리고 위의 Ikenberry의 질서의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은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 (1) 규칙에 따르는(constitutional)¹, (2) 세력 균형의, (3) 패권적 질서. 즉, 개별 국가들이 어떠한 규칙에 따르는 유형의 질서가 존재하고, 혹은 힘을 가진 여러 국가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질서가 있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강력한 하나의 국가가 주도하는 질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의 질서는 어떠한 유형의 질서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질서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그 질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다. 예를 들어,

- 세력 균형 질서라고 한다면?
 - 우리는 어떻게 약소국들이 강대국에 편승(bandwagoning)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우리가 현재 살펴볼 수 있는 균형화의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 균형화에 대해 Snyder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 * 왜 국가들은 미국의 힘이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지 않았을까?
- 패권적 질서라고 한다면?
 - 현재 패권국은 어떤 국가일까?
 - 패권적 질서는 변화를 허용할까? 허용하지 않는다면, 패권국은 과연 변화를 추구하는 '도전자'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맺게 될까?
- 규칙을 준수하는 질서라고 한다면?
 - Ikenberry에게 이러한 질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¹대부분의 비교정치, 혹은 법정치(judicial politics)에서는 이를 헌법적이라고 번역하겠지만 국제관계는 무정부 상태이고 국제관계 전체를 규율하는 법종의 법, 헌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 Ikenberry는 규칙준수의 질서에 대해 세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 원칙에 대한 합의가 공유되어야 하고,
 2. 규칙과 제도들은 각 국가들의 힘의 행사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규제력(binding)을 가져야 하며,
 3. 쉽게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듣기에는 좋아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Ikenberry가 말하는 규칙준수의 질서가 세계정치에 실재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과연 이러한 질서로 세계정치를 설명할 수 있을까?
 - 규칙준수의 질서에서 가장 주요한 목적은 바로 '승리'로부터 얻어지는 보상을 줄이는 것이다.
 - 즉, 어느 국가도 이겨봐야 될 많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굳이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제관계에서 '승리', '이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약 세 가지 정도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1. 강압(coercion)이다. 위협 등의 수단을 통해 승리하여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보상을 얻는 것이다. 무력을 사용한 위협이 종종 강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강압의 유형으로는 제재(sanction)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외부옵션(outside options)이다. 특정한 행위자와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할 경우를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대방은 나와 거래를 해야만하지만, 나는 그 이외에도 다른 대안들이 많을 때, 나는 거래의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즉, 테이블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국제관계에서 동맹을 변경하거나 경제협력 파트너를 변경하는 등의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과연 누가 파트너를 바꿀까? 좀 더 강한 쪽(잃을 게 적은 쪽, 혹은 잃어도 더 버틸 여력이 되는 쪽)이다.
3. 의제설정의 힘(agenda-setting power)이다. 선점을 통해 얻는 이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마도 이 개념이 가장 Ikenberry가 말하는 규칙준수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우리는 종종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가지는 의제선점의 힘을 목격하고는 한다.
 -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 중요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미국이 주요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 다른 당사자들은 이를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 의제를 설정하는 행위자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행위자'를 제약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도이다.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 국제관계의 행위자들의 행동을 제약한다.

1. 행위의 기준을 설정한다. 규범 또는 헌장 등을 통해 시간에 걸쳐 명시적으로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2. 그렇게 수립된 규칙을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순응(compliance)하게 하고, 그 순응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제도에 속한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이 제도의 규칙에 순응하는지 서로를 감시할 수 있다(선거, 핵무기 생산 등).
3. 의사결정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켜, 제도가 없는 의사결정보다 제도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선호하게 만든다.
4. WTO,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등과 같은 분쟁해결 기제들을 통해 행위자들 간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국제적 상호작용의 게임 (Games of International Interaction)

대체 게임이론이란 무엇인가?

게임이론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략적인 연관 개념들을 보면, 수학적 기호나 그로 이루어진 복잡한 공식들이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현실세계의 정치현상을 정교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게임 그 자체에 다양한 행위자들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그것들을 모두 줄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약(connotation)에 기초하여 함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약속—수학적 기호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보다 직관적으로(straightforward), 행위자, 선택, 전략들에 값(values)이나 숫자(numbers)를 붙여서 전략을 살펴볼 때, 구분이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한 것일 뿐이다.

- 하지만 게임이론의 깃에 놓여 있는 논리는 결코 수학적인 것만은 아니다.
- 오히려 게임이론을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은 바로 전략적 상호작용(strategic inter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대체 이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행위자를 고려한 의사결정의 과정(process of joint decision making)이라고 할 수 있다.
 - * 예를 들어, 핵무기 개발, 집단 안보, 국제조약의 이행 등은 IR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략적 상호작용의 사례들이다.

- * 위와 같은 상호작용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행위자가 자신의 선호만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상호작용'이 함축하고 있는 한 가지 전제, 최소 둘 이상의 행위자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럼 게임(game)은 무엇일까? 게임은 바로 모델(models)이다.²
- 논리적으로 현실세계를 단순하게 재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모델은 과학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론적(논리적) 시각을 따라 현실세계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한다.
 - 모델은 현실세계와의 상호조응성(isomorphism)을 가지고 있다.
 - * 즉, 모델은 현실세계의 모습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한 분석기제(oversimplified and omitted reality)와 같다.
 - * 연구자는 특정한 이론에 따라 실제 현상의 표출양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선택해 그들 간의 관계양상을 모델로 표현한다.
 - * 따라서 모델과 현실세계의 상호조응성은 부분적이지 불완전하므로 같은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모델들이 무수히 존재할 수 있다.
 - 즉, 게임도 모델이기 때문에 게임도 항상 똑같은 형태를 가지지는 않는다.—게임은 유연하며(flexible), 가변적이다(adaptable).

게임의 요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자. FLS은 게임이론에 있어서 게임의 주요 요소로 행위자(actors), 선택(choices), 결과(outcomes), 선호(preferences), 전략(strategies), 해결방안(혹은 해, solution) 등을 소개하고 있다.

- 행위자
 - 분석하고자 하는 게임에 얼마나 많은 행위자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당연히게도, 행위자가 많아질수록 게임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 선택
 - 행위자들은 몇 가지의 가능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 역시 파악해야 한다.
 - 행위자들이 몇 개의 선택지를 가질 것이냐는 전적으로 현실세계를 반영하여 모델을 설계하는 연구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많을수록 게임을 푸는 방법은 복잡해진다.
- 결과
 - 이렇게 파악한 행위자와 그들의 선택지 간 결합(combination)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해야 한다.
 - 이 결과야말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경험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예를 들면, 두 국가 간의 핵무기 군비경쟁이라던가, 평화조약의 채택이라던가 등.
- 선호
 - 선호는 행위자들이 그들의 선택에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다.
 - 선호야말로 우리가 '합리적 선택'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선호가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하고(need to be able to identify), 나아가 그 선호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 전략
 -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행동들은 행위자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들이다.
 - 무엇이 행위자들로 하여금 지배적인 전략(dominant strategy, 이하 지배전략)을 가지게끔 만들까?
 - * 행위자의 다른 전략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배전략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 * 즉, 지배전략이란 어떤 행위자가 게임의 상대방이 무슨 행동을 취하던 간에 그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 해결방안
 - 게임은 퍼즐과도 같다.
 - *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해결방안, 답을 찾아 해낸다.
 - * 게임이론가들에게 있어서 해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균형(equilibria)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균형은 게임의 두 행위자 모두가 최선의 전략을 수행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한다.
 - * 따라서 균형이란 필연적으로 다른 플레이어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²번역하자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형을 통해 현실세계의 주요 구성단위와 단위 간 관계, 총체적 구조를 파악한다. 여기서 모형과 모델은 동의어이며 상호교환이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렉

우리는 게임이론을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1. 먼저, 행위자가 누구인지, 몇인지를 규명하고
2. 그 행위자들에게 있어서 가능한 전략을 규명한다. 대개는 ‘협력’(cooperate)과 ‘승패’(defect)와 관련된 것들이다.³
3. 행위자들의 선호에 값(values)을 붙여서 순위를 매긴다.
4. 해를 찾는다.

그럼 실제 게임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I.S.를 진압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다고 하자. 두 플레이어는 각각 미국과 러시아이고, 이들은 I.S.를 진압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독박은 쓰기 싫은 상황이다. 만약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서서 비용을 다 부담해준다면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일 것이다.

Table 3.1: 게임1. 누가 I.S.를 진압할 것인가?

		러시아	
미국	주도	상호 협력하여 진압 (3,3)	대기 러시아에게 유리 (1,4)
	대기	미국에게 유리 (4,1)	서로 진압문제를 무시 (2,2)

이때, 미국의 선호순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미국에게 유리한 경우 (4) > 상호 협력하여 진압할 경우 (3) > 서로 무시할 경우 (2) > 러시아에게 유리할 경우 (1)

러시아의 선호순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러시아에게 유리한 경우 (4) > 상호 협력하여 진압할 경우 (3) > 서로 무시할 경우 (2) > 미국에게 유리할 경우 (1)

선택의 쌍이 (미국, 러시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미국의 지배전략은 대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도와 대기 중에서는 대기하는 쪽이 주도하는 쪽에 비해 모두 높은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이다. 러시아의 지배전략도 대기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두 행위자의 지배전략이 교차하는 부분은 “서로 진압을 무시”하는 것이다.
 - 바로 이 두 행위자의 전략이 서로 변화하지 않는 지점, 내쉬 균형 (Nash Equilibrium)이 된다.
 - * 구체적으로 내쉬 균형이란 각 행위자가 서로의 전략에 대해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게임이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런데 사실 선택에 따른 선호 결과의 조합이 가장 높은 값을 지니는 것은 “상호 협력하여 진압”하는 것 (3, 3)이다.
 - 이러한 최고의 선호 조합의 값을 지니는 경우를 파레토 최적점 (Pareto optimal)이라고 한다.
 - * 파레토 최적과 파레토 차선 (suboptimal)
 - 파레토 최적: 협력이 파레토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호 혜택이 최선인 경우, 결합 효용 (joint utility)가 가장 높은 경우
 - 파레토 차선: 승패를 가를 때가 파레토 차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행위자의 선택지가 결합되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 따라서 이 게임에서 우리는 두 행위자들의 지배전략이 교차하는 내쉬 균형이 반드시 두 행위자에게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 극복하기 (Overcoming the Prisoner's Dilemma)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서 하나의 영상을 보자.

- 위의 유튜브 영상에서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변화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만약 호스트가 게임에 개입하여 게스트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만약 동일한 게임을 다시 한 번 플레이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 죄수의 딜레마의 전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³굳이 표현하자면 협력 혹은 승패라는 행위에서 약간씩 다른 (variation) 전략들이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거래 (bargaining)이라든지.

- 국제체제에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인(incentives)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 행위자들에게 있어서 계속 패배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더 선호할만한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 무엇이 행위자들의 유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 여기서 제도(institutions)의 역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죄수의 딜레마가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게임을 생각해보자.

국제관계에서의 치킨 게임(Chicken Game in IR)

Table 3.2: 게임2. 핵무기 경쟁

		이란	
		저지	유지
		양국 간 긴장의 완화	이란에게 유리
미국	저지	(3,3)	(2,4)
	유지	미국에게 유리 (4,2)	전쟁? (1,1)

이때, 미국의 선호순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미국에게 유리한 경우(4) > 양국 간 긴장의 완화(3) > 이란에게 유리한 경우(2) > 전쟁(1)

이란의 선호순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이란에게 유리한 경우(4) > 양국 간 긴장의 완화(3) > 미국에게 유리한 경우(2) > 전쟁(1)

각 행위자들의 지배전략은 무엇인가? 치킨게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두 행위자들이 행동을 변화시킬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 균형적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이란에게 유리한 경우와 미국에게 유리한 경우, 두 가지이다. 이 게임에서는 선호의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쟁이 아닌 모든 결과는 파레토 최적의 결과이다. 긴장 완화, 미국 유리, 이란 유리 모두 두 국가의 결과는 선호의 총합 6으로 동일하다.

- 여기서의 결과는 각각의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좌우된다.
- 즉, 치킨게임을 통해 우리는 국제관계 속에서 명성(reputation)과 정보(information)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위기를 무릅쓸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de-incentivize risk)이 중요하다!
 - 정보의 공유는 치킨게임에서의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게임이론으로 생각해보는 브렉시트(Brexit)

Table 3.3: 게임3. 브렉시트

		E.U.	
		교섭	결렬
		효율적인 무역/여행	E.U. 주도의 규제
영국	교섭	(4,4)	(1,3)
	결렬	영국 주도의 규제 (3,1)	비효율적인 무역/여행 (2,2)

이때, 영국의 선호순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효율적인 무역/여행(4) > 영국 주도의 규제(3) > 비효율적인 무역/여행(2) > E.U. 주도의 규제(1)

E.U.의 선호순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효율적인 무역/여행(4) > E.U. 주도의 규제(3) > 비효율적인 무역/여행(2) > 영국 주도의 규제(1)

이 게임에서 각 행위자의 지배전략은 치킨게임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균형은? 효율적인 무역/여행 또는 비효율적인 무역/여행으로 두 개의 균형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 효율적인 무역/여행이 두 행위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약속하므로 파레토 최적의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게임의 양태를 사슴사냥(stag hunt)라고도 한다.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게임을 말하는데, 사슴사냥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이다.

- 과연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 같이 쫓기로 한 사슴을 계속 쫓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혹은 다른 행위자가 이탈하여 토끼를 잡고 나는 사슴을 놓치는 불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나도 토끼를 잡으러 가야 할까? (From Efficient to Inefficient)
- 신뢰를 제고하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로써 어떠한 것이 있을까?
 - 상호 의사결정에 드는 비용이 더 작을수록, 그리고 협력의 실패의 (승패를 가르는) 비용이 더 클수록 행위자들은 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제도의 역할: 제도는 국가들로 하여금 속임수를 쓸 선택지를 최소화시킨다.

앞서 언급한 행위자를 제약할 수 있는 기제,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읽어보자.

Chapter 4

Methods

We describe our methods in this chapter.

Chapter 5

Applications

Some significant applications are demonstrated in this chapter.

Example one

Example two

Chapter 6

Final Words

We have finished a nice book.